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11:6

강요한 목사님

서론 : 기둥 같은 일꾼

- (1)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
- (2) 사단의 회당, 대적, 원수가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대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 (3)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때문에 시험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다.
- (4)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 (5)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포럼하시기를 바란다.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믿음이 무엇인가?

1858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고, 시력이 나뻐오며, 천식이 심해서, 생일 케이크의 촛불도 끌 수 없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해서 11살이 되었다. 그때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역사에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어린아이가 23살이 될 때 뉴욕주의 의원이 되었고, 28살에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뉴욕지사와 부통령을 거쳐, 미국을 재건한 대통령이 되었다. 1906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 사람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이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믿었던 믿음의 말, 그 아이가 가졌던 믿음이 미국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 서로 축복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정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하나님은 분명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다시 축복하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대학청년들과 늘 하는 인사다. “살롱, 살롱.” 평안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한다.

-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그게 믿음이다. 당대의 의인 노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너는 나와 네 자녀와 세상을 위해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산에 지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짓기 시작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을 것이다. 믿음은 그렇지 않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몸 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조직이 아니다.

그냥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는 조직이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조직이다. 하나님이 마침내 40일 동안 밤낮 비를 내리셨는데, 세상이 잠기고 방주는 떠오르게 되었다. 노아를 조롱하고 방주를 타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멸망했고,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다. 아브라함을 잘 아시지 않는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또 약속하신다. “네 씨를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하리라.”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다.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리는 속으로 웃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히4:12).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다. 이삭이 묻는다.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마침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삭도 믿음이 있다. 도망가지 않고 묶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신다. 히브리서 기지는 이렇게 기록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이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없지 않나. 이것을 믿은 것이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위대한 지도자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 이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모든 장자를 칠 것이다. 그러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장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것을 믿고 온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것이다. 다음 날 그 말씀을 믿은 자들,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곡소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집에서는 바로의 장자부터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2) 그래서 계1:3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다.

(3)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가. 히브리어 ‘묵상’이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 ① 첫째는 되새기다, 읊조린다는 뜻이 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묵상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끝나지 않는다. 묵상하는 것이다.
- ② 두 번째 뜻은 으르렁거린다는 것이다.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보면 으르렁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야, 은혜되네, 좋네.’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다. 내 심령이 황폐해진다. 그래서 으르렁거리며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 ③ 세 번째 뜻은 경영한다는 것이다. 경영할 때, 일을 할 때, 기획만 하고 그치지 않는다. 반드시 실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묵상이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게 믿음이다.

2. 그런데 왜 사람들이 믿다가 낙심하는가? 이유가 있다.

(1) 믿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출입한 것이다. 참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다. 종교생활을 한 것이다. 마12장은 종교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마12:43-45에 보면, 마음에 귀신이 있다. 귀신이 그를 떠나

걸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옛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다. 이에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더 데리고 왔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었다.

(2) 종교생활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할 수 없고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다.

(3)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롬3:23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3.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는가?

(1) 요1:12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그 순간에 신분이 바뀐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다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화된다. 본인이 변화될 뿐 아니라, 그 변화를 가족, 친구가 보게 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2)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성령 내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요14:26). 지혜가 부족하거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능력이 부족하면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고전3:16은 말씀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가? 그러면 바뀌어야 한다. 예배시간에 떠들거나 돌아다니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게임을 한다면, 바뀌어야 한다. 길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불신앙을 한다면, 바뀌어야 한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3) 갈2:20,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끊임없이 나를 부정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모르고 기도한다. 뭘 달라고 한다. 해결해 달라고 한다. 그것도 기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인가. 예수님이 부하직원인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4. 하나님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성령충만을 누리게 된다.

(1) 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힘 들다, 안 된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능력이 없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이다. 램네프가 영화를 보고 와서 말했다. “어떤 영화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홍보비 받은 게 아니다. 영화사 광고 직원이 아니다.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이다. 내게 주신 응답을 간증하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더 큰 응답이 필요하다면 작은 응답 받은 것부터 증거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증인될 것을 알고 더 큰 증거를 주신다. 증거를 주시겠다고 했다. 증거가 없으면 기도하라.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사,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2)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히11:38,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성령충만을 받은 자는 세상의 누구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3) 행6:3-7, 성령이 충만한 일꾼, 중직자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

가게 되었다. 교회가 어려운가? 성령충만을 받으면 된다. 힘이 없는가? 성령충만을 받으면 된다. 어려운 일이 있는가? 성령충만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서로 축복하라.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결론 :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지켜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라. 오늘 강단 메시지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1)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보라. 현 상황이 아니라 사실을 보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실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란다.

(2) 이 복음의 메시지를 겸손하게 준비해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라. 복음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가.

(3) 디모데와 오네시모를 다 살릴 수 있는 그릇과 규모를 갖춰야 한다.

여러분은 강단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는가? 노트가 붙잡게 하지 마라. 강단 말씀을 다시 읊조리고,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으르렁거리며 붙잡아라. 이 말씀이 모든 삶과 경영 가운데 성취되기를 축원한다. 다음 주에 모일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를 간증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한다. 다시 인사하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